

Spain, Latin America

내 삶의 마콘도를 찾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자서전

송병선_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지난해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출판계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자전소설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의 출간이다. 지난해 10월 9일, 바르셀로나, 보고타,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에서 동시에 출간되어 100만 부를 초과하여 찍어낸 이 작품은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 그곳에서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전해진다.

출간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이 작품은 많은 일화를 남겼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광적인 독자들의 습격을 우려해 방탄트럭으로 각 서점에 배포를 했고 첫날 배포한 5만 부가 하루 만에 모두 팔렸으며, 15만 부가 배포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이틀 후에 서점마다 '품절'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나붙기 시작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인구 600만 명에 불과한 볼리비아에서도 만나질 만에 2천 부가 동나는 진기록을 세웠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등에서도 벌어졌다.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는 '인생이란 한 사람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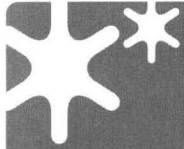
그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이다'라는 말로 시작한 다. 바로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즉, 인생이 무엇인지를 결정짓고 조건지은 사람이 의식적·무의식적 요소들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글쓰기의 과정에서 실제의 삶은 보다 풍부해질 수도 있고 빈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기억되는 것은 아니며, 아무 리 그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더라도 그의 기억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는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처음으로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소설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작가의 소명의식과 진정한 작가가 되기 위한 어려움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가 태어난 집을 팔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떠났던 여행, 아라카타카의 한 마을에서 외할아버지와 보낸 어린 시절, 바랑키야에서의 학창시절, 위대한 콜롬비아의 정치인 호르헤 엘리에세르 가이탄과의 만남 등이 적혀 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아들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 가브리엘 엘리히오 가르시아와의 관계, 가난했던 시절, 기자로서의 삶, 음악과 영화와 시에 대한 그의 열정 등도 적혀 있다.

이 작품은 3권으로 예정된 자전소설 중 첫 번째 책으로, 작가가 태어난 1927년부터 1955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작가로서의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요 작품들의 시대적 배경을 이루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독자들은 《백년 동안의 고독》, 《콜레라 시대의 사랑》,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의 싹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공이 아닌 '진짜' 마콘도와 '진짜' 부엔디아 가문을 볼 수 있다.

흔히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독자들은 그것이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자전소설을 읽는 순간, 작가가 왜 그 용어를 항상 거부하면서, 자기는 마술적 사실주의 작가가 아니라 사실주의 작가이며,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에 관해서는 한번도 쓰지 않았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제한된 경험과 단순한 상상에만 의지하여 글을 씀으로써 '소설의 죽음'을 자초한 소설가들, 독서의 참맛을 느끼려는 독자들, 그리고 비평가들에게 앞으로의 소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송병선**



프랑스 출판계를 리드하는 문고본 시리즈

박해현_조선일보 파리특파원

프랑스 출판계의 문고본을 대표하는 '리브르 드 포쉬 Livre de Poche' 총서가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영국의 팽귄 북스에 비하면 짧은 역사지만, 리브르 드 포쉬는 오늘날 프랑스의 출판인과 저자, 독자들에게 일용할 정신의 양식으로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고전에서 동시대의 베스트셀러에 이르기까지 소설-비소설을 아우르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염가로 제공하는 이 문고본을 가리켜 '구텐베르크와 20세기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리브르 드 포쉬를 펴내는 아셰트 출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출판인과 언론인들이 50회 생일을 축하하는 데 발벗고 나서고 있다. 기념 행사하기를 즐기는 프랑스답게, 파리의 조르주 퐁피두 센터가 오는 3월 5일 이 문고본의 50년 역사를 한눈에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대형서점들은 일제히 리브르 드 포쉬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매장을 만들었고, 책 3권을 사면 그 중 1권을 공짜로 제공하는 식으로 축제 분위기를 북돋운다.

리브르 드 포쉬는 지난 1953년 출범한 뒤 지난해까지 10억만 부 이상을 팔았고, 프랑스 문고본 시장에서 정상을 지키고 있다. 14,000종이 시리즈에 수록되어 있고, 해마다 360종이 새로 추가된다. 이 문고본의 편집 방침은 '소

박하고, 친숙하고, 은밀하고, 다정하고,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 문고본의 베스트셀러 작가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영국의 추리 소설가 애거서 크리스티이다. 그녀의 소설은 4,000만 부 이상 팔렸고, 그 뒤를 이어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에밀 졸라가 2,200만 부를 기록하고 있다.

출판에 관한 한 엄숙주의가 팽배했던 탄생 초기에 이 문고본을 향한 반대 여론도 없지 않았다. 싼 값으로 양서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취지에 대해 '책을 상품으로, 독자를 소비자'로 만든다는 비난이, 워낙 말하기 좋아하는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고본의 출범 초기부터 대성공을 거뒀고, 다른 출판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문고본을 펴내는 시대를 열었다.

제 뒤 J'ai lu 문고가 1958년, 포켓 Pocket 문고가 1962년에 각각 탄생했다. 이 문고본들은 지난 한 해에만 각각 900만 부와 1,450만 부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리브르 드 포쉬의 성공은 마침내 문학 명문 출판사인 갈리마르로 하여금 1972년 폴리오 Folio 문고 시리즈를 펴내게 했다. 폴리오 문고는 지난 한 해에만 1,200만 부를 팔았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으로, 590만

부를 기록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현대 소설로는 카뮈의 《이방인》, 사르트르의 《구토》,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이 꼽히는데, 이 3권이 모두 폴리오 문고의 보물단지들이다.

프랑스 출판계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이름의 문고본 시리즈가 '지식의 민주화' 운동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소설가 중에서 프랑스에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한 이문열 씨의 경우, 소설 《시인》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악트 슈드 출판사가 펴내는 바벨 문고 시리즈에 꽂혀 있다.

프랑스 문고본 시장의 활성화는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힘입은 바 크다. <르 몽드> 등 일간지들은 매달 새로 나오는 문고본을 위한 지면을 별도로 제작하는데, 동시대 작가와 저자의 문고본일 경우,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단행본으로 대접받는다. 베스트셀러의 경우, 1년이 지난 뒤 문고본을 내서 더 많은 인세를 저자에게 안겨다준다. 초판 판매가 부진했던 책이 문고본으로 나와, 저렴한 가격 덕분에 뜻밖의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빈번하다. 독자와 저자, 출판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프랑스의 문고본 문화가 한국에도 이식돼 만개하기를 바란다. ■